

고규홍의 '나무 생각'



해마다 팔월이면 우리 민족이 삶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떠올리게 된다. 더불어 그들이 남긴 삶의 자취를 찾아 바라보면서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 많은 나무 중에서도 특이하게 민족 해방의 염원을 담고 살아온 나무가 있다. 충청남도 당진 '필경사'라는 오두막 곁에 도담도담 자라난 한 그루의 향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다.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민족 해방 운동에 헌신한 심훈이 손수 심고 키운 나무다.

신문기자 생활을 했던 심훈(沈薰, 1901~1936)은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절창의 시편을 모아 시집 '그 날 이 오면'을 내려 했으나 일제의 검열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충남 당진군 부곡리로 찾아들었다. 1932년 이다. 농촌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기로 작정한 그는 글 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오두막 한 채를 지었다. 당호는 '밭을 갈면서 글을 쓰는 집'이라는 뜻으로 필경사(筆耕舍)라 했다.

그리고 집 창문 앞에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를 심으려 했다. 여러 종류의 나무 가운데 민족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잃지 않겠다는 상징을 담으면서도 민족 해방의 희망과 기원을 하늘까지 전할 수 있는 신성한 나무를 심고 싶었다. 그는 결국 사철 푸른 잎을 떨구지 않으며, 독특한 향기를 하늘까지 전하

민족의 염원을 담고 살아남은 심훈의 상록수

는 향나무를 골라 심었다.

심훈은 아침저녁으로 나무 곁에 머무르며 정성을 들였다. 나무에 기원인 그의 정성은 조국 해방의 그날을 그린 염원의 표현이었다. 차욕의 세월을 견뎌 내면서 더 푸르고 더 향기롭게 자라는 것이 자기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이유임을 나무는 심훈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통해 알았을 것이다.

심훈은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향나무를 도반 삼아 소설을 썼다. 농촌계몽운동에 투신했다가 26세의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 한 최용신(재영신)이라는 여성 운동가의 삶을 한 편의 소설로 구성했다. 그리고 그는 소설 집필 기간 내내 늘 곁을 지켜 주었던 향나무를 바라보다가 소설의 제목을 '상록수'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훈은 그토록 그리던 조국 해방의 날을 맞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소설 '상록수'가 우리 문학사의 귀중한 유산으로 남은 것처럼 심훈이 지극정성으로 심고 가꾼 향나무도 그와 맞먹는 의미와 무게로 푸르게 살아남았다. 아직 백년을 채 살지 않았지만 뒤쪽으로 늘어선 대나무나 오두막 앞에 새로 심은 측백나무에 비해 심훈의 향나무는 유난스레 기운차게 느껴진다. 심훈의 눈에 향나무가 먼저 들어왔던 것도 그런 웅골찬 생김새 때문이었으리라.

주인 떠난 자리에 남은 한 그루의 향나무는 돌보는

사람 없이 훌쩍 키를 키워, 필경사의 초가지붕 위로 나뭇가지를 드리웠다. 푸르른 민족정기의 상징으로 살아 남은 향나무는 그를 심은 사람의 뜻에 따라 푸르게 잘 자랐다. 조국의 해방과 번영을 기원한 심훈의 염원을 알기라도 하는 듯 나무는 작지만 뜸직하고 웅골차게 자랐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을 타고 조국 광복을 위해 몸 바친 선조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식민지 세월을 견뎌 푸르게 가지를 뻗고 잎을 돋운 나무는, 이 땅에 식민지 시대의 상처가 잊어진다 해도 이 자리에 남아 다음 시대를 채비할 우리에게 하나의 지침으로 우뚝 서 있을 것이다.

고난의 역사를 비롯해 이 민족의 모든 역사를 증거하는 자연 유산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무는 사람의 자취가 모두 흩어진 뒤로 오랜 세월이 지난 때까지 사람의 향기를 기억하며 후대 사람들에게 옛 사람의 자취를 전하는 생명체다.

나라 잃은 설움을 이겨 내며 민족의 새 역사를 쓰는 심정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키운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은 그들이 심어 키운 한 그루의 나무를 더 온전히 더 아름답게 지켜 내야 할 때다. 그것이 곧 우리 조국을 지켜 준 선조들의 뜻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일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의 내일을 열어 주는 가장 큰 바탕이 되는 일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김윤하 전남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아흔이 넘은 어르신인 한 손엔 지팡이, 다른 손은 딸의 손을 잡고 힘겹게 차에서 내린다. 한참 동안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의사는 미리 준비한 휠체어에 이 환자를 모시고 병원에 들어간다. 전립선암이 커져 요관을 막아 스스로 배뇨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한 달에 한 번씩 도뇨관을 새로 갈아 끼워야 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다닌 지 벌써 일 년이 넘었다. 하지만 어르신은 아직도 정신이 명료해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감사 표시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은 없다.

어르신은 항상 차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대기하고 있는 휠체어를 탄다. '휠체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질병, 상해, 장애 등으로 인해 걷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대퇴(고관절) 부위는 골반뼈와 넓적다리뼈를 잇는 관절로써 하반신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고관절이 골절되면 서고 걷는 것 등의 기본적인

휠체어와 지도자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휠체어에 의존하여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자유로운 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이다. 행동의 기분이 견고 뛰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신체의 유연성 및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낙상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 따라서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고관절 골절로 인해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로 인해 폐렴, 혈전 등 의한 뇌졸중, 욕창, 영양실조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에 대비한 생활 환경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며 비록 지금은 불 꺼진 연탄재지만, 얼마 전까지 사력을 다해 불을 내어 온기를 만들었기에 재로 남게 된 연탄재의 숭고한 헌신을 기렸다.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되어 휠체어로 병원에 온 공무원이었던 어르신은 결국 다 태워져 한 줌의 재가 된 연탄재처럼 국가와 자손에게 뜨거운 사랑을 바치고 세상을 떠났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공간 이동을 해주는 휠체어는 작은 행복을 선사해주는 편리

하고 꼭 필요한 기구이다. '휠체어 함부로 뺨개치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안락하고 절실한 의자가 되어 본 적이 있느냐?' 새삼 휠체어의 역할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희생하고 도와주며 살아왔을까?'라는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병원 앞을 지나치며 포개져 보관되어 있는 휠체어들을 보며, 보잘 것 없이 초라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만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지도자를 뽑기 위한 경선이 시작되었다. 모든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외치고 있다. 허나 예수나 부처처럼 도덕적이고 모두가 사랑하고 추앙받는 분이 훌륭히 나타나지는 않을 듯 하다. 대권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묻는다. 그간 누려왔던 모든 혜택과 권력, 편견이나 억울함, 적개심, 욕심 등을 다 떨쳐 버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통성을 굳건하게 지키며, 오로지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눔의 뜻을 끝날 때까지 고이 간직할 수 있는지를... 부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친 국민에게 '휠체어' 역할을 하고, 잘 이끌어 주실 훌륭한 분이 선택받기를 바란다.

기고



김은희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일상적인 대면 서비스가 비대면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 분야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까요? 지금도 공공·민간 교육 할 것 없이 비대면 교육 분야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온라인 강의는 물론이요, 자기 계발을 위한 온라인 학습이 필요한 경우 유튜브 등을 통해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 분야에서도 온라인 교육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성인 대상의 평생학습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취업을 위한 여학, 자격증 준비에서부터 다양한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학습을 통해 워라밸을 실현하고 있고, 중년·노년 세대도 재교육이나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 기회가 훨씬 폭 넓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교육 분야에서도 보편화된 것입니다.

에듀테크(edutech) 분야에도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교육, 즉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의 성장

지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에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스타트업 투자 분위기 속에서도 에듀테크를 포함한 비대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20% 이상 증가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로,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이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국내 에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토의 모의시험 여섯 문제만으로도 사용자의 실제 시험 점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제와 강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로 세계 유명 투자회사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획일화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난 개인 맞춤형 학습의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교육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열풍이 뜨겁습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초월의 의미인 메타(meta)와 세계,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이 가상의 세계에 게임 같은 놀이 공간 뿐만 아니라, 사무실, 각종 매장, 병원, 학교 등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 놓고, 또 다른 세계에서 소비도 하고 놀이와 일이 이루어지는 제2의 생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가상 캠퍼스에서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교육 가능함으로써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현실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상황도 메타버스에서 경험하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타버스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MZ세대에게 새로운 소통의 창

구로 크게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그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적용한 신입사원 교육이나 연수, 세미나가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기업의 예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아마도 가장 큰 특징은 교육 영역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육이 딱딱하게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학습 과정이 아니라, 교육의 개념이 앞으로는 '즐기면서 배우고, 즐기 위해 배우는' 모든 놀이 과정, 교육 엔터테인먼트로 새롭게 정의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제간 영역 파괴는 물론이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고정된 형식에서 벗어나 어떤 형식과도 서로 융합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가벼운 주제의 교육 내용은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되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가상 환경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 엔터테인먼트가 실현되려면 까다롭고 힘든 교육, 예를 들면 의학 교육의 과정에서도 즐기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금의 사고방식도 앞으로 다가올 에듀테인먼트에 쉽게 져어 들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오는 만큼, 평생 직업 교육도 다양한 분야에서 호기심과 재미가 함께 하는 학습 콘텐츠로 교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육은,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면서, 즐겁지 않으면 교육이 아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社說

절박한 취준생 울리는 취업 시기 엄단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채용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20~30대 청년들의 절박하고 애타는 심정을 이용한 취업 시기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시된 특별 단속에서 모두 16건의 취업 시기 범죄가 적발됐다. 그중 사기범 A의 경우 "대기업 부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현금을 주면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 준비생 부모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사례를 포함해 광주에서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네 명의 취업 준비생들과 그 가족들이 뜯긴 돈은 2억 5500만 원이나 됐다.

전남 지역에서도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갠됐다 사기 피해자가 된 청년들이 열 명이나 된다. 실제로 여수에서 사기범 B는 자신이 건설 회사 현장조장인데 관리직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섭외비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

아겠다고 검거됐다. 한전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과 골비 상차 등을 받은 C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식의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접근해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 시기가 황폐해지는 것은 코로나19로 '고용 절벽'이라고 불릴 만큼 취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 준비생은 85만 9000명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취업 시기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부모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로, 죄질이 나쁜 악질적 범죄다. 따라서 경찰청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상시화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적발된 사기범들은 일벌백계하여 재판을 막아야 할 것이지만, 구직자들도 비정상적인 채용에는 절대 현혹되지 않는 냉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적 쌓기식' 이어져야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10년 전부터 내놓은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실태조사는 '실적 쌓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6월 광산구 야산에서 고교생 A군이 오랜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B양이 지난 7월 31일 진도에서 학교 폭력을 암시하는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매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됐지만 이에 학교 폭력 현실을 담아내지도 못했고, 더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도 막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학교 폭력 실태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 당국은 매년 실시하는 학교 폭력 실태조사 문항

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학교 폭력 실태 조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학폭 대책위 또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면 문항을 공개함이 마땅하다.

교육 현장에서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화해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마무리하려는 곳이 많은 것도 문제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궁극지 않고 터져 나오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패시브 대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찰과 교육 당국은 공동으로 학교 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폭력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섯 개의 궁궐 중 첫 번째인 경복궁은 1395년 완성됐다. '큰 북을 누리랴'는 뜻의 '경북'(景福)은 삼봉 정도전이 시경(詩經)의 한 구절에서 따와 지은 것이다. 경복궁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지만 1867년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 재건에 나섰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데 전체 궁은 7225칸 반, 후원의 전각이 256칸, 궁성 담장의 길이가 1765칸에 달했다.

정조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2년 6개월 만에 영종추부사 체제공의 주관하에 수원

구도심 복원

은다. 초석 이외의 석재에 마름돌 사용이나, 기둥머리에 두공을 짜 올리는 것, 장식 등으로 단청을 입히는 것 등도 금지했다.

광주 등 지방의 부목군현(府牧郡縣)에는 읍성 내 동헌이나 객사 등의 시설을 두었다. 궁의 축소 모형인데 한양의 그것들보다 더 검소하게 건축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방의 중심도시는 자연 여건이나 역사적 사건 등에 근거해 특색 있는 공간을 두기도 했다. 광주읍성, 회경루, 석서정, 동계천·서방천·용봉천, 경양방죽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에 비해 광주는 구도심의 매력력을 화성을 축소해 했다. 높일 자원이 드물 수밖에 없다.

숨을 맞게 하는 고층 아파트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의 핵심이자 태자리는 구도심이다. 현재와 미래를 담아 옛자원들을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사람을 불러 모을 '킬러 콘텐츠' 없이 옛 모습만 그쳐 똑같이 본뜬 '박제'를 만드는 데 열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구도심의 재생과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